

대구주보

사순 제4주일

2020. 03. 22. (가해) 제2206호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9,39)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치유』, 안젤로 트레비사니, 1715~1720, 베니스 성 프란치스코 델라 비냐 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장량본당 주임 | 나경일 펠릭스 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들 중에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이들도 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생 소경들에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가족과 지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찬란한 햇살과 대지에 낮게 깔린 아침 안개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짐작해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본 태생 소경은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틈도 없이 상상하지 못했던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치 그가 눈을 뜬 것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마냥 혼란스럽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떴냐고 따지며, 또 그렇게 해준 이가 누구인지 캐묻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분명 죄인인데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답변을 강요합니다. 소경의 부모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태생 소경이 맞느냐며 억지스러운 팩트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공격과 몸을 사리기 급급한 부모의 외면, 그 한가운데서 태어나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곳곳한 자세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언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공격에 맞서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면서 스스로 증언하던 중에 그는 또 깨달아갑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이윽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꼭 알아봐야 할 것을 알아보는 진정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눈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소경과 특정한 목적 때문에 눈앞의 엄연한 현실조차 부정하며 외면해버리는 바리사이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극명한 대비를 신앙인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러려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눈 뜬 장님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꼭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눈, 세상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 3:12**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처음엔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들리더니 어느새 우리 동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손이 가지 않던 마스크를 쓰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식하며 살다 보니,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결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깊이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요.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새와 나무는 인간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창조된 만물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마치 “우주적 가족”처럼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창조 세계는 “하나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인간만의 안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듯이, 건강하지 않은 지구에서 인간만 홀로 건강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네 인간은 지구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류는 그 연결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몰두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런 망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지구를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만물이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연결성의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이 않고 있는 중병에 우리도 조금씩 전염되고 있음을, ‘북극곰의 눈물’은 곧 ‘인류의 눈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책임 있는 ‘지구 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지만, 그 연결성을 통하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없지만 ‘사회적 연대의 백신’으로 이겨내고 있듯이, 지구가 않고 있는 병은 심각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합시다. 북극에서부터 나와 내 이웃까지, 우리는 ‘공생’할 때 안녕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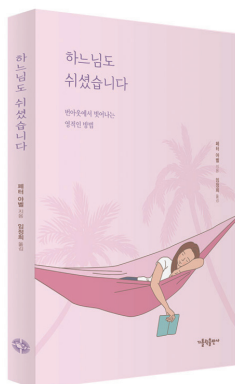
변아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방법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너무 지쳐 더 이상 지칠 것도 없다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2020년 1월 12일 <아시아 경제> 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스트레스 적신호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많은 직장인들이 변아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함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에 가톨릭출판사에서 출간한 『하느님도 쉬셨습니다』는 우리가 내적인 힘을 기르며 변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변아웃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진단하고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인물을 통해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변아웃을 이겨 낼 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피로에서 벗어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페터 아벨 지음 | 임정희 옮김
164면 | 13,000원 | 가톨릭출판사

SNS 시대의 신앙

사이버 신학의 등장과 SNS 시대의 가톨릭 사목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된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진단하고 가톨릭 사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한 『SNS 시대의 신앙』이 나왔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 중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사이버 신학이다. 저자는 인터넷의 논리로 교회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이버신학도 신학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SNS 시대의 한계와 위험을 진단하기도 한다. SNS가 선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독단'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 책은 SNS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증언하고, 그 안에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교회 문헌과 교황의 홍보 주일 담화, 그리고 성경 말씀과 연결해 보여준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지음 | 이창욱 옮김
84면 | 8,000원 | 바오로딸

안군심 리카르도 (1774~1835년)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난 안군심 리카르도는 청년 시절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하였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교회 서적을 बे끼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았다.

본래 명랑한데다가 겸손하고 친절하였던 리카르도는 누구나 애덕으로 대하였고, 그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였다. 또 그는 자식들의 교육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보통 1주일에 세 번씩은 대재를 지켰다.

언젠가 리카르도는 포졸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모호한 말로 대답하여 석방되었고, 이후로는 언제나 그때 분명하게 신앙을 증거하지 못한 것과 용기가 부족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리카르도는, 언젠가 자신도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 교우들에게 나누어준 서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얼마 동안 숨어 지내면서 순교할 준비를 하였는데, 상주 포졸들이 마침내 그곳을 찾아내서 그를 체포하였다.

상주 관장은 안군심 리카르도를 보자마자 천주교

신자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교리를 외워 보라고 하자,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외우고서는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천주교 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관장이 “국법을 어기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주는 우주의 큰 임금이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물 위에 공경해야 합니다. 임금과 관장과 부모님은 천주 다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어 관장은 천주를 배반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이를 거절하고 형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자주 옥에서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언제나 끈기 있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대구로 이송토록 하였다.

대구 감영에 도착한 뒤에도 리카르도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의 몸은 이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주께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지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는 다시 옥으로 끌려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8년 동안 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1835년 이질에 걸려 사망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1사무 16,17,20바.6-7,10-13	제 2 독 서	에페 5,8-14	복 음	요한 9,1-41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가톨릭신문 유튜브

사순 제4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 총대리
장신호 주교 집전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주교님 집전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라디오 매일 05:00, 18:05 | 유튜브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필경(안드레아) 신부
1936년 3월 23일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행사 | 모임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3.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제32기 모집

개강: 4.4(토) 10:00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제31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4.20(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3월_최동석(안드레아) 신부
4월_이정옥(안드레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가톨릭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제56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7(수)~8.14(금)
성인(대학·일반): 7.5(일)~8.9(일)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키나, 제대꽃꽂이, 태극권,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신청: 254-6115

성가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채용 | 안내

가톨릭피부과의원 피부과 전문의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문의: 320-2121 / (010)6653-8022

AD 대학생 센터 안내

경산지역 대학생들의 활동과 신앙생활
지원(카페AD, 스터디룸, 강좌 개설 등)
대학생 미사: 주일 17:00
장소: 압량대학생거점성당
문의: (010)5202-5885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병원 500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T. 555-552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전 대구가톨릭대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안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췌장 전문의 노성규 마루구스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향출발, 미사4회
성지 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순례 1박2일
전국 15개 교구, 12개 코스 매일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오완수(바오로)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간청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간청하며 바치신 기도입니다.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

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

우성네트웍
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동단지 전자관 2층 71호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프랑스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곡)성요셉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 053-650-4444 / 053-657-4444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2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방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3인방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대표전화 053) 670-6000